

사계절 유아생태환경학교 최종보고서



주최 : 전주 환경운동연합

후원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사계절 유아 생태 환경 학교 - 봄 들꽃학교

I. 목적

교육이란 '百年之大計'라고 일컬어질만큼 인간의 사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야 누누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더구나 유아기의 교육이 평생의 인성과 가치관, 생활 습관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때문에 현대의 부모들이 교육에 들이는 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해 온 것이 있다. 능력있는 전문인, 인정받는 사회인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른 품성을 갖추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우선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가 아닌 공동체 의식, 남을 배려하는 마음, 곧은 가치관 형성을 염두에 두고 교육해야 하며, 생태적 감수성과 자연친화적 정서의 함양으로 이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하겠다. 자연 속에서 넉넉함을 배우고 아주 작은 생명체부터 생태사슬의 최종 소비자까지 공동체임을 깨닫는다면 적어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기주의나 생명경시 풍조 등에 의식 없이 동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봄 들꽃학교를 시작으로 겨울까지 이어지는 사계절 유아 생태환경학교를 통해 식물의 자람과 그것을 체험으로 학습하여 얻어지는 생태적 인간상을 목적으로 한다.

II. 진행일정

- 참가자 인원 : 어린이환경감시단 유치부 50명
- 장소 : 회문산 자연 휴양림
- 일시 : 2002년 5월 22일 23일 24일

III. 주요활동

◆ 자연과의 약속

1. 자연을 다치게하자 말자. - 꺾지 말고, 뽑지 말고, 상처내지 말고, 죽이지 말자
2. 자연을 더럽히지 말자 - 비닐팩, 광통, 유리병, 각종 쓰레기로...
3. 자연에서 가져 가지말자 - 꽃, 열매, 나뭇가지, 흙, 돌

◆ 활동명 : 봄의 들꽃

- * 학습유형 : 강의, 토의
- * 학습형태 : 모둠활동 (25명)
- * 장소 : 회문산 자연 휴양림내

▶ 활동내용

식물에게 어울리는 별명을 만들어 불러주기

◆ **활동명 : 내가 만드는 들꽃도감**

* 학습유형 : 관찰탐구

* 학습형태 : 모둠활동 (10명)

* 장 소 : 회문산 자연 휴양림 인근

▶ 활동 내용

식물 관찰 후 직접 그린 그림으로 도감 만들기

◆ **활동명 : 식물 기네스 대회**

* 학습유형 : 관찰탐구

* 학습형태 : 전체활동

* 장 소 : 회문산 자연 휴양림

▶ 활동내용

가장 큰 나무, 작은 나무 등 바로 눈에 보이는 기네스가 아니라 제일 작은 나뭇잎, 제일 하얀 꽃잎 등 전체가 아닌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각자 모은 자료를 대상으로 기네스를 선정.

◆ **활동명 : 나무야 나무야**

* 학습유형 : 관찰탐구

* 학습형태 : 전체활동

* 장 소 : 회문산 자연 휴양림 수련장 인근

▶ 활동내용

청진기를 이용해 나무 수액이 올라가는 소리를 직접 듣는다. 나무도 사람처럼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 **활동명 : 야생화 슬라이드 보기**

* 학습유형 : 관찰탐구

* 학습형태 : 전체활동

* 장소 : 회문산 자연 휴양림

* 활동내용 : 지도 강사와 야생화 슬라이드를 보며 학습한 꽃을 반복 학습하는 기회를 갖고, 자세히 관찰한다.

별첨

봄생태학교 일정표 - 봄 들꽃학교

봄 첫째날 (5월 22 수요일) - 대 자연의 푸르름 속으로 풍당!!

몇시에	뭐하냐면	어디서	책임 선생님
오전 11:30~12:30	전주 수목원 견학 - 꽃들의 백화점에서 눈을 크게 뜨고 관찰	전주 수목원	꽃다지 손지숙선생님
오후 1:20	차안에서 환경노래 부르기 회문산 자연휴양림 도착.	버스안	모듬 선생님
1:20~2:30	회문산 자연휴양림에서 친구들과 도시락 나눠먹는 시간	휴양림 잔디광장	모듬 선생님
2:30~3:00	-숙소배정 및 짐풀기	회문산 휴양관	모듬 선생님
3:00~4:30	산림욕으로 시작하는 들꽃학교 - 우리모두 산소같은 여자, 산소같은 남 자!!	휴양림 산책로	향토사학자 송동열선생님
4:30~6:30	나무야 „나무야,, 나무랑 친해지는시간 청진기로 들어 보는 나무의 심장소리	휴양림 산책로	시민행동21환경 팀 신진철팀장님
6:30~7:30	밝은 하늘입니다! - 저녁식사	식 당	영양사
7:30~8:30	<강연> 봄의 들꽃 슬라이드로 들꽃을 감상해 볼까요?	강의실	시민행동21환경 팀 신진철팀장님
8:00~9:30	들꽃별명 짓기- 내 이름을 불러 주세요	강의실	신진철팀장님 모듬별선생님
9:30~10:30	모듬 시간 - 모듬별 하루 평가 및 일기	숙소	모듬별선생님
10:30~	아~함! 이제 잘까요? 자연의 신비한 소리를 들으며	숙소	모듬별선생님

봄 들쨌날 (5월 23일 목요일) - 우리는 자연의 친구들!!

몇시에	뭐하냐면	어디서	책임 선생님
오전 7:00~8:00	아침을 싱그럽게^^ 아침산책이 맞을까?? 식물 공부가 맞을까? 산책하며 들꽃... 들풀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휴양림산책 로	시민행동21환경 팀 신진철팀장님
8:00~9:00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못 가지듯이 - 아침 식사	식 당	영양사
9:00~10:30	휴양림 습격작전 - 숲속 수련장에서 신나는 시간	남부군비트	모듬선생님
오후 10:30~12:30	내가 만드는 들꽃 도감 -뭐든지 내손으로 척척척!!	휴양림 잔디광장	모듬선생님
12:30~1:30	밥은 하늘입니다.하늘은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 점심식사	식 당	영양사
1:30~2:30	식물 기네스 대회, -모두모두 기네스에 도전해 보는 시간	숲속 스탠드	배귀재선생님
2:30~3:30	색종이 접기 - 꽃 닮은 색으로 접어 볼래요.	숲속 수련장	모듬선생님
3:30~5:00	오후간식 및 수서생물관찰 계곡에 가재랑 놀아 볼까요?	계 곡	이형기선생님
5:00~6:30	자연물로 표현해요, -친구들이랑 자연으로 그려요!!	산책로	이은주 선생님
6:30~7:30	선생님 배고파요.. 하늘주세요!!! - 저녁식사	식 당	영양사
7:30~9:30	· 숲검정 원시인이 되어 감자 구워 먹세!! · 우리가 환경캠프에 참가한 사명으로!!! 환경을 지키는 다짐식-반딧불이가 증인	운동장	환경학교장 유혜숙선생님
9:30~10:00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쓰구... 엄마 아빠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들으며 선생님 저 잘래요,,,, 하얏~	숙 소	모듬선생님

봄 셋째날(5월 24일 금요일)-다시!! 새로움으로

몇시에	뭐하냐면	어디서	선생님은
오전 7:00~8:00	모두 기상!!! 햇들 셋넷!! 체조시간	운동장	모듬별선생님
8:00~9:00	밥이 맛있나? 국이 맛있나?	식 당	영양사
9:00~10:00	환경(들꽃)퀴즈 - 환경은 생명입니다!!	숲속 수련장	환경운동연합 김진태사무처장
10:00~11:00	휴양림 정화 활동. - 끝내주게 깨끗하게 청소하기!!	휴양림 일대	
오후 11:00~12:00	워크북정리및 짐꾸리기 - 뭐 잊은거 없수??	숙 소	모듬별선생님
오후 12:00~1:00	들꽃학교에서의 마지막 식사 - 혹시 귀한 음식을 남기지는 않았겠죠??	식 당	영양사
1:00~1:30	우리는 자랑찬 어린이 환경 감시단 -수료식	강 당	환경학교장 유혜숙선생님
1:30~	- 발자국만 남기고 추억은 한아름 가지고... 환경을 지킨다는 의지는 단단하게하고... 집으로 출발!!!	강 당	모듬별선생님

봄 들꽃학교를 마치며...

자연과의 약속

1. 자연을 다치게하지 말자. - 꺾지 말고, 뽑지 말고, 상처내지 말고, 죽이지 말자
2. 자연을 더럽히지 말자 - 비닐팩, 깡통, 유리병, 각종 쓰레기로...
3. 자연에서 가져 가지말자 - 꽃, 열매, 나뭇가지, 흙, 돌

세가지 자연과의 약속으로 시작된 2박 3일의 봄 들꽃학교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신나게 뛰어 노는 좋은 경험이었으며, 그날 그날 들꽃과 나무에 대한 전문강사와 함께 했었기에 작은 들꽃에도 이름이 있음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줘야함을 배우며 매일 새로움으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다.

먼저 들꽃학교의 시작을 수목원 견학으로 하여, 아이들에게 꽃과 나무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고, 들꽃학교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보통 캠프를 생각하면 그냥 신나게 노는 것 이라고 여겨 왔었는데, 들꽃과 나무라는 테마를 가지고 2박3일 동안 손에 연필과 클립보드를 들고 다니며 식물을 그리고, 질문하고, 쓰는 모습들은 유치원 아이들이라고 하면 다른 등산객들이 다 놀랄정도로 진지한 모습이였다.

나무야 나무야.. 나무랑 친해지는 시간은 나의 심장소리와 나무의 수액올라가는 소리를 들으며 비교해 보는 경험. 계절상 수액올라가는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만 가지고 계시던 청진기를 직접 만지며 친구들의 심장뛰는 소리와 나무의 소리를 들어보는 좋은 경험이었다.

나무의 수액올라가는 소리는 이른봄에 특히 잘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봄의 들꽃 80종의 꽃 사진을 슬라이드로 감상하고 공부하는 시간

밤이 깊어 가는 줄도 모르고 어둠속에서 빛을 발하는 슬라이드 사진에 모두들 시선 고정!! 들꽃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갖는 좋은 시간이였다.

내가 만드는 들꽃도감은 도감에 넣고 싶은 식물을 선택해서 그리고, 이름을 써보는 시간, 6살 7살 아이들이라 보니 아직 한글을 능숙하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나름의 관찰력으로 그림만은 특징을 잘 살려서 그렸다.

식물 기네스 대회는 숲속에서 제일 큰 나뭇잎, 제일 키작은 나무... 갖가지 기네스를 찾아 보는 시간.. 찾아서 모이면 쉬웠을텐데 그렇게 되면 나무와 식물을 헤치지 말자는 근본 약속을 어기게 되므로 본인이 선택한 식물 옆에 서보기로 하였으나 장소가 넓어서

아이들이 멀리 흩어져서 진행이 더디고 다소 집중이 안되었던 아쉬움이 있었다.

수서생물 관찰 계곡에는 1급수에서만 산다는 가재들이 많이 있어서 개구쟁이 친구들이 신나는 시간이었다. 직접 보기 힘든 가재를 손에 들고 관찰하고,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가재를 지켜 보며 뜨거운 햇살도 잊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선생님 이 꽃은 이름이 뭐예요?"

"나 이 꽃 그릴꺼야."

"선생님! 저 이제 때죽나무가 뭔지 알아요."

서로 누가 더 많이 그렸는지 내기라도 하는 듯, 공부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다.

"애들아! 나 이상한거 발견했어! 모두 모여봐!" 한 아이가 손에 동글 동글한 원가를 가득 담은채 소리 지르자 우르르 달려가 모이는 아이들!

"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게 뭐냐..?"

"선생님! 이거 동글동글한거 뭐예요?" 선생님이 다가와서 하신 한마디는??

"어.. 이건 산토끼 똥이야..."

아이들은 산토끼 똥이라는 말에 기겁을하고 땅에 던지면서도 깔깔대며 즐거워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아는 아이들...생태적 삶의 가치를 이해하는 어른으로 자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2박 3일의 들꽃학교는 아이들에게 배우는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었고 들꽃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까지 느끼게 해주는 좋은 시간이었다.

세계적 유아 생태 환경 학교 - 여름 나무학교

I. 행사 목적

- 1) 미래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도심 내 녹지 공간의 절대부족과 하천의 오염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자연이 주는 넉넉함, 생명의 가치와 숨결을 느껴 보지 못하고 삭막하고 메마른 정서를 가진 채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자연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2) 각분야의 전문가들과 환경연합의 활동가로 구성된 강사진의 열의에 찬 교육과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내실있는 환경교육과 21세기 시민 의식의 가장 중요한 환경가치를 심어주는 기회를 가진다.
- 3) 덕유산국립공원 안성자연학습원은 인근의 민주지산이나 마이산과 연계되는 독특한 생물상을 가지는 곳이며 보존해야 할 청정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이와 같은 자연환경에서 자연 생태계의 이모 저모를 배우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생태적 마인드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행사 일정

- 주 최 : 전주환경운동연합 어린이 환경감시단
- 일 시 : 2002년 7월 31일(목) - 8월3일(토) (3박4일)
- 장 소 : 전북 무주 안성 자연학습원
- 참 가 자 : 어린이 환경감시단 유치부 50명
초등부 90명 (초과인원 40명 숙박비는 자체부담)

III. 주요프로그램 진행

1) 생태, 환경 교육 프로그램

- 가자, 생명의 숲으로! 만들자 나무도감 - 살아 숨쉬는 자연의 숲 관찰
 - 강 사 1 : 김양용(무주안성자연학습원 강사) - " 나무와 숲 "
 - 강 사 2 : 이득영(생물학 박사과정) - "산에사는 꽃과 풀"
 - 강 사 3 : 백용식 (무주안성자연학습원 강사)
 - 보조진행 : 김진태, 최두현, 황해성, 소인섭, 유민엽
- 지구와 함께 수억년을 살아온 곤충 - Bugs life
 - 강 사 : 김진태(생물학박사)
 - 보조강사 : 이정현, 이기용, 유민엽, 황해성, 소인섭, 최형재, 최두현

- 너희가 쉬리와 반딧불이를 아느냐? - 맑은 계곡 수생 탐사
 - 강 사 : 김용문(무주안성자연학습원 강사)
 - 보조강사 : 김진태(수서근충)
- 어느 산골소년의 아름다운 별 이야기 - 여름밤 별자리 여행
 - 강 사 : 소인섭 , 한동주 (별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모임)
 - 보조강사 : 별을 사랑하는 선생님
- 빨갈게 파랄게, 자연의 색깔을 만드실래요? - 직접 해보는 천연 염색
 - 강 사 : 유은영 (유일여고 가정교사)
- 환경박사와 함께하는 생활 속의 환경실천
 - 강 사 : 최형재 (전주환경연합 사무국장)

2) 공동체 심성 발달 교육

- 쓰레기를 이용한 주변 오염 실태조사
 - 강 사 : 이정현(전주환경연합 기획팀장)
- 미래의 환경뉴스 만들기
 - 진 행 : 이정현(전주환경연합 기획팀장)
 - 내 용 : 환경교육을 바탕으로 2020년 미래의 환경 문제를 예측해보게 하여
신문이나 방송극 형태로 제작.
- 한밤의 야외 영화상영
 - 진 행 : 조시돈(전주독립영화협회 대표)
 - 상 영 작 :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3) 놀면서 배우자!

- 프로그램을 좀더 여유있게 진행하고 자연 속에서 배우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고 캠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연을 호흡하는 체조 (지도 : 박상철 선생님)
 - 오! 필승 환경감시단 - 축구 교실 (지도 : 유쓰 그린)
 - 전통 흥놀이 지도
 - 물놀이 지도 - (유민엽 : 한국해양대)

여름생태학교 일정표 - 여름 나무학교

여름 첫째날 (7월 31일 수요일) - 맑은 공기, 맑은 물, 상쾌한 하루!!

몇시에	뭐하냐면	어디서	담당 선생님
10:00~10:30	신나는 숲속환경학교로 출발!! - 짐결, 출석확인, 이름표, 워크북배부	시청뒤 기린로	모듬별 선생님
10:30~2:00	돌탑 사이로, 푸른 나무 사이로야호!!! - 마이산으로 이동, 등반, 돌탑이야기 - 대청마루에서 도시락먹기, 수련원 이동	마이산	송동열 선생님
2:00~3:00	환경은 생명 - 짐정리, 입교식, 방배정	자연학습원 강당	교장 선생님
3:00~4:00	환경에 대해 공부해요! - 환경 강의	자연학습원 강당	최형재선생님
4:00~6:00	우리 모듬 모여라 ~ - 모듬구호, 응원가, 규칙정하기	숙 소	모듬별 선생님
6:00~7:00	꼬로록 ~~' 선생님 밥주세요!!!	식 당	영양사
7:00~9:00	신나는 영화감상시간 - 어떤 영화일지 궁금하죠????	운동장	조시돈선생님
9:00~10:30	우리의 손으로 맛있는 간식 만들어 먹기!!! - 옥수수과 감자 구워먹기	운동장	모듬별 선생님
10:30~	음 ZZ~~ 피곤해~~~~~잘래	숙 소	사 감 선생님

여름 들쨌날 (8월 1일 목요일) 자연체험하기!!!

몇시에	뭐하냐면	어디서	담당 선생님
7:00~8:00	아침은 싱그럽게 ^^ - 신기한 기체조 - 몸튼튼 맘튼튼 - 산책하대 자연과 이야기 나뉘요.	운동장	모듬별 선생님
8:00~9:00	아침밥을 먹어야 하루가 든든해요	식 당	영양사
9:00~12:00	숲을 공부해요 ~~!! - 이 나무는 뭘까요? - 들꽃에 대해서 알아봐요!	덕유산	김양용 , 이득영 백용식 선생님
12:00~1:00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 신나는 점심 시간!!	식 당	영양사
1:00~2:00	신나는 자유시간 ...!! - 축구할까? 아니면 산책할까 ?	운동장	조별 신청
2:00~6:00	메뚜기야 방아깨비야 같이 놀자아~~~~ - 관찰하대 놀고 다시 놓아 줍시다 - 열심히 관찰하여 곤충박사 돼보자!	학습원	김진태 선생님
6:00~7:00	고로록!! 고로록~~~ 배고파요 - 애들아 저녁 먹자~~~~	식 당	영양사
7:00~8:00	골든벨을 울려라!!!!!!!!!!!!!!	강 당	이정현선생님
8:00~10:00	덕유산 별 속에서 내 별을 찾아요. - 아름다운 별자리 여행	운동장	소인섭 , 한동주 선생님
10:30~	꿈속으로의 여행 ~ 일기는 쓰고 자자!!	숙 소	사 감 선생님

여름 셋째날 (8월 2일 금요일) - 신나는 레크레이션~!~ 재밌게 놀자

몇시에	뭐하냐면	어디서	담당 선생님
7:00~8:00	아침은 싱그럽게 ^^ - 신기한 기체조 ~ 몸튼튼 맘튼튼 - 산책하며 자연과 이야기 나눠요.	운동장	모듬별 선생님
8:00~9:00	눈을 비비며 먹는 아침밥!!!	식당	영양사
9:00~12:00	내가 만드는 천연염색 - 세상에 하나뿐인 손수건 모험훈련 ~!~ 씩씩하게~~~	수련원	유은영 황해성선생님
12:00~1:00	오늘 점심 반찬은 뭘까?~ - 신나는 점심 시간 ~ 배고파~~~~~	식당	영양사
1:00~2:00	우리 모듬 모여라!! - 모듬 별로 재밌게 신나게 놀자!	운동장	조별 신청
2:00~6:00	많은 계곡에는 누가누가 사나? - 물속에도 곤충이 사네? - 물고기야 나랑 놀자!!!	계곡	김용문선생님
6:00~7:00	오늘 저녁은 든든히!! 레크레이션 해야나 간 ^^ - 저녁식사 하장~!~!~!~!	식당	영양사
7:00~10:30	신나는 이밤!!!! 잠을 잊은 우리들~~~ - 신나게 놀자 레크레이션 - 다짐식, 불타는 캠프파이어	운동장	아름다운 청년
10:30~	너무 놀았나??? 몸이 넘 피곤해~~ - 일기는 꼭 쓰고~~ 잠자요~~~~ 쿵쿨~	숙소	사감 선생님

여름 넷째날 (8월 3일 토요일)

-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COME BACK HOME~~~!!!

몇시에	뭐하냐면	어디서	담당선생님
7:00~8:00	모두 기상!!!! ^^ - 신기한 기체조 ~ 몸튼튼 맘튼튼 - 산책하며 자연과 이야기 나눕니다.	운동장	모듬별 선생님
8:00~9:00	오늘 밥은 맛있나? 국은 어때? - 아침 밥 먹기	식당	영양사
9:00~11:00	여기는 환경 방송국 ~ 환경 방송국! - 환경 방송국 놀이하기!!! - 2050년 우리의 지구는 ~~~?~~	강당	이정현 선생님
11:00~12:00	쓰레기도 예술 작품????? - 버려진 쓰레기로 예술작품 만들어요	강당	유민엽 선생님
12:00~1:00	수련원에서의 마지막 식사 - 마지막 점심식사!!!! - 숙소정리, 짐챙기기	식당	영양사
1:00~2:00	우리는 자랑스런 어린이 환경 감시단 - 환경 감시단 수료식, 용담댐으로 이동	강당	교장 선생님
2:00~3:00	여기가 용담댐이로구나!!! - 용담댐 견학 및 전주 이동~~~~	용담댐	주용기선생님
3:00~	전주 도착!!!! - 안녕! 친구들아~~ 다시 만나자!!! - 마지막 일기 쓰는거 잊으면 안돼	시청뒤 기린로변	모듬별 선생님

여름 나무학교를 마치며...

유치원 아이들이 3박4일 캠프활동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일거라는 추측과 금지(?)로 시작된 3박4일의 일정은 무주 안성 자연학습원에서 개최하였다.

3박 4일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무리일것이라는 걱정들도 많았지만 3박 4일이라는 시간적 여유로움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더운 여름이라 아이들이 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피할 수 있고, 배우는 즐거움까지 있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였던 3박 4일이었다.

한낮의 햇살은 물놀이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물놀이 후 출출할 때는 따끈 따끈한 유기농 야채전으로 출출함을 달랬었다. 물놀이 후에 직접 부쳐 먹는 따끈 따끈한 야채전과 주먹밥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아이들은 여름 나무학교가 끝나고 한참동안이나 그때의 야채전과 주먹밥 이야기를 하면서 군침을 삼키곤 했었다.

나무공부는 더운 낮 시간을 피해서 오전 나절과 어느 정도 해가 기우는 오후로 시간을 계획해서 놀때 놀고, 공부할때 공부하는 능력을 높였다.

나무에 대해서라면 무엇을 질문하더라도 척척 답을 해주시는 김양용선생님을 비롯한 자연학습원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나무에 대한 상식을 높일 수 있는 산책시간은 맑은 숲속에서 삼림욕과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했던 시간이라면 한밤에 보았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영화관람시간, 낮 동안 채집했던 곤충들을 실물화상기를 통해 확대하여 스크린을 통해서 관찰했던 시간, 천연염색시간을 들 수 있겠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영화관람시간은 다소 아이들에게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긴 시간이었고, 더빙된 영화가 아니고 한글자막 처리된 영화였지만, 감수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이라서 인지 끝까지 재미있게 보았던 것 같다.

낮 동안 모듬별로 곤충 채집통에 채집했던 곤충을 여러 아이들이 돌려가며 관찰한다면 수억년을 살아온 곤충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에 곤충들이 죽어 나갈거라는 생각에 김진태곤충박사님께서 저녁나절 실물화상기를 통해 확대하여 스크린에 곤충을 비춰서 모든 아이들이 곤충을 공유할 수 있게 도와 주셨다. 평소엔 저희들의 손가락보다 작던 곤충들이 큰 스크린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는 색다름과 함께 곤충박사님의 자세한 설명이 아이들을 사로잡았었다.

유은영선생님과 함께 했던 천연염색시간은 각자 한 장씩 손수건 천을 받아서 소목의 노랑색으로 염색해 보는 시간이었다. 여러번 주물러야 고운 색이 나온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한없이 빠져들어 손수건을 주물어대는 아이들이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빨래줄에 널을 때에도 행어 빼돌어질세라 널었다가 걸어서 다시 널고, 모서리까지 맞춰가며 널고 뿌듯해하

는 모습들이었다. "선생님 저는 색깔 이쁘게 하려고 진짜 많이 주물렀어요." "선생님 저는 요 손에 주황색 묻은게 안 지워질까봐 빨리 주물렀어요." 저마다의 소감을 이야기하며 흥분하는 아이들을 보는 일 또한 즐거운 일이었다.

여름 피서철이라 근처 물가마다 행락객들이 많아서 수생식물 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던이 조금 아쉬웠지만 3박 4일이라는 여유로운 일정 덕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나무학교 일정은 아이들을 생태적 감수성을 많이 키워주는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는지 여름나무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며 느낀점을 이야기 해주는 학부모님들이 반응이 다른 캠프때 보다 몹에 와 달았다. 아이들이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고 놀라울 정도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3박 4일은 무리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씩씩하게 3박4일을 마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쉬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은 자연을 닮아있었다.

사계절 유아 생태 환경 학교 - 가을 쓰레기 특공대

I. 목적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환경의식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감수성을 키워 미래의 환경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봄 여름 생태 학교 때는 들꽃, 나무의 관찰학습 및 생태적 삶을 위한 마인드 함양에 비중을 둔 교육이 이루어 졌었고 가을엔 캠페인 활동을 계획하였다.

아이들이 쓰레기를 줍고, 미래에 본인들이 살 세상을 지켜 가는 모습은 오늘을 사는 어른들에게 어떤 멋진 표어 보다 더 호소력있는 캠페인 일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아이들은 저희들 손톱만한 쓰레기도 크게 보는 신비로운 눈을 가지고 있기에, 사소하다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사계절 유아 생태 환경 학교 - 가을 쓰레기 특공대에서는 어른들에게 환경을 지키고 사랑하자고 큰 목소리로 힘주어 말하지 않는 대신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직접 쓰레기를 줍기로 했다.

가을 쓰레기 특공대의 목적은 환경을 지키고 사랑하는데도 결코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캠페인의 주최측인 어린이들 자신이 실감하며, 쓰레기에 대해 공부하고, 늦었다고 속단하기 전에 작은 힘을 모아 환경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삶터가 쓰레기로 오염된 흉한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캠페인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알리는데에 있다.

II. 행사 일정

- 주 최 : 전주환경운동연합 어린이 환경감시단
- 일 시 : 2002년 11월 1일(금) - 2002년 11월 2일(토) 유치부
2002년 11월 2일(토) - 2002년 11월 3일(일) 초등부

방학중이 아니라 초등학생은 금요일부터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유치부와 초등부가 1박 2일씩 교대로 진행

- 장 소 : 모악산 유스호스텔, 김제 금산사 일대
- 참 가 자 : 어린이 환경감시단 유치부 100명 초등부 100명

III. 주요프로그램 진행

◆ 활동명 : 쓰레기 매립지 견학

- * 활동유형 : 견학
- * 학습형태 : 전체활동
- * 장소 :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 * 활동내용 : 오염지를 답사하고 강사님께 설명과 강의를 듣는다.

◆ 활동명 : 캠페인 피켓과 리플렛 만들기

- * 학습유형 : 작업활동
- * 학습형태 : 모둠활동 (30명)
- * 장소 : 모악랜드유스호스텔 내
- * 활동내용

① 모둠별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나눈다.

② 의견을 취합해서 현상자 뒷면과 용지에의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서 캠페인 피켓과 리플렛을 만든다.

③ 캠페인 및 쓰레기 수거활동때 어떻게 할지 등에서 이야기 나누고 정리한다.

◆ **활동명 : 쓰레기 산은 싫어요.**

* 학습유형 : 캠페인 활동

* 학습형태 : 전체활동

* 장 소 : 모악산 인근, 금산사 인근

* 활동방법

모듬별로 만들었던 피켓을 들고 모듬별로 쓰레기 봉투와 집계를 들고 산책길의 쓰레기를 줍는다.

◆ **활동명 : 쓰레기를 활용한 작품 만들기**

* 학습유형 : 작업활동

* 학습형태 : 전체활동

* 장 소 : 금산사 인근, 유스호스텔내

* 활동방법

주었던 쓰레기를 분석,분리 작업하고, 모듬별로 상징물을 만든다.

◆ **활동명 : 가을 숲에 얽힌 이야기 - 단풍놀이**

* 학습유형 : 관찰탐구

* 학습형태 : 모듬활동 (10명)

* 장 소 : 모악산 인근 금산사 산책로

* 활동방법

①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한 나뭇잎을 찾아 본다.

② 색깔 별로 모아 본다.

③ 어떤 색으로 변한 나뭇잎이 많은지 찾아 본다.

④ 산책길에서 강사는 나뭇잎이 단풍이 드는 자연현상을 강의한다.

⑤ 나뭇잎을 원하는 모양대로 구성해서 붙여보고 잎맥을 스크래치 해본다.

* 단풍이 드는 이유

봄과 여름에는 녹색 색소가 많이 일을 하지만 가을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면 잎과 가지 사이에 떨어져라고 하는 층이 생겨 물과 양분을 나르는 관을 막아버립니다. 잎 속의 엽록소가 파괴되어 녹색이 사라지면 이제껏 눈에 보이지 않던 '카로티노이드'라는 노란 색소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은행잎의 색을 노랗게 만듭니다. 또 잎을 붉게 만드는 것은 '안토시아닌'이라는 빨간색 색소입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 나뭇잎들도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될 수 있으면 활동을 멈추고 살아남기 위한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와 같은 뾰족한 잎을 가진 나무들은 잎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잎사귀를 떨어뜨리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가을 생태학교 일정표 - 쓰레기 특공대

가을 첫째날 (11월 1일, 금요일) - 쓰레기 특공대 모악산으로 출발!!

몇 시에	뭐하냐면	어디서	책임 선생님
오전 오후 11:00-12:20	쓰레기매립장 견학 -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의 모습	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최두현 시민운동연합
오후 12:20-1:00	모악산 유스호스텔로 이동	버스 안	모듬 선생님
1:00-2:00	점심 및 휴식	유스 호스텔	모듬 선생님
2:00- 2:30	-숙소배정 및 짐풀기	유스 호스텔	모듬 선생님
2:30-4:30	쓰레기 정화 활동+숲에 얽힌 이야기 -쓰레기도 줍고 공부도하고,,^^	모악산 산책로	김양용선생님
4:30- 6:30	내가 주운 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쓰레기로 조별 상징물 만들기	유스 호스텔	이정현팀장님
6:30-7:30	밥은 하늘입니다! - 저녁식사	식 당	영양사
7:30-9:30	· 홍보물만들기 피켓+리플렛 멋지게 만들어서 등산객에게 선물?? · 가을별자리 이야기 가을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의 이야기 를 들어 봐요	유스 호스텔	루른약속21 이은주팀장님지 구를 사랑하는 교사들의 모임 소인섭선생님
9:30-10:00	모듬 시간 - 자연의 소리를 들어 봐요	유스 호스텔	모듬별선생님
10:00-10:30	일기 쓰고 잠시다!!	숙소	모듬별선생님

가을 들췌날 (11월 2일 토요일) - 우리는 소중한 숲의 대변인.

몇 시에	뭘하냐면	어디서	책임 선생님
오전 6:30~8:00	아침을 싱그럽게^^ 신나는 체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요. 아침산책, 세면	산책로	모듬선생님 김양용선생님
8:00~9:00	아침 식사 반찬은 깨끗한 공기랍니다.	식당	영양사
9:00~10:00	쓰레기의 화려한 변신 모듬별 작품 전시	유스 호스텔	이정현팀장님
10:00~11:00	·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 소중한 자연..내 몸같이 사랑해줘요. · 자연물 보물찾기	산책로	이정현팀장님
11:00~11:20	모듬별 간식 시간 친구들아 다음 환경학교에서 또 만나자	마당	모듬선생님님

가을산 쓰레기 특공대를 마치며...

가을산 쓰레기 특공대의 첫 행선지는 오염의 심각성을 호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가 될 만한 곳, 쓰레기의 최종처분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매립지에서 쓰레기의 악취와 함께 우리가 배출시킨 쓰레기들이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현장에서 압도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맨처음 눈에 띈 것은 운동장보다 넓고 또 깊은 구덩이에 쌓여있는 풍선 같은 커다란 것들이었다.

"선생님 저거 뭐예요? 하얀색 풍선이예요? 엄청 크다." 예쁜 풍선인줄 알고 관심을 보였던 것은 많은 양의 쓰레기를 압축시켜서 하얀색 비닐로 수십번 감아서 냄새가 나지 않게 밀봉해 놓은 것이었다. 지금은 소각시설이 없어서 일단 매립 시켜놓고, 향후에 소각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매립장에 들어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보아 왔던 쓰레기 차들이 쓰레기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들 입이 딱딱 벌어지며 쓰레기산이라는 말이 터져나왔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커다랗게 써있던 표어는 어린이 환경감시단 친구들에게 쓰레기는 더럽고 냄새나는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에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자원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것임을 설명하기에 적합했고, 압축, 밀봉, 운반까지의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아이들의 관심이 높았다.

모악산 유스호스텔에 짐 풀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쓰레기 특공대의 활동을 개시했다. 맥주병, 음료수 캔, 과자상자등 큰 쓰레기는 물론이고 어른들의 눈에는 작아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오물도 아이들은 꼼꼼히 찾아내어 쓰레기 봉투에 담아 쓰레기 특공대라는 무시무시한 이름 값을 하였다. 친구들과 같이 주운 쓰레기는 환경운동연합 이정현팀장님과 분리수거작업을 하며 분리수거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나서 모둠별로 조형물을 만들어 봤다. 쓰레기가 꼬끼리, 거북이, 배, 익룡등 유아들과 친숙한 조형물로 다시 태어나니, 욕심있는 아이들은 모둠 상징물 외에 자신의 상징물을 만들어 본다며 눈을 크게 뜨고 쓰레기를 찾으러 다니는등... 쓰레기를 소중하게(?) 느끼는 즐거운 경험이었다. 밤에는 모악산유스호스텔 앞 마당에 별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모임선생님들께서 천체 망원경을 설치하여, 먼 밤하늘의 별자리를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다음날 아침에는 유치원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그리고, 써서 만든 리플렛을 모악산 금산사 나들이 오신 어른들께 나누어 주는 홍보활동을 펼쳤었는데 어른들의 반응을 실감할 수 있었다. 리플렛을 펼쳐 보시며, "아이구, 쓰레기 특공대가 출동했구나! 무서워서 쓰레기 버리면 안되겠네." " 꼬마친구들이 착하기도 하네.."등의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특공대 아이들이 더욱 신바람이 났었다. 리플렛을 나누어 주고 내려오는 길에 아이들이 만들어서 배포한 리플렛이 단 한 장도 바닥에 버려져 있지 않은 것을 보며, 역사 아이들의 호소가 비록 목소리는 작지만 캠페인 효과는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 활동명 잠행 - 몸으로 느끼는 자연

- * 활동유형 : 체험활동
- * 학습형태 : 모둠활동 7명~8명
- * 장소 : 송광 야영장 소나무 숲
- * 활동내용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한손으로는 앞친구의 허리춤을 잡고, 한손으로는 길을 인도해주는 밧줄을 잡고 소나무 숲길을 걸어가는 활동으로 오감을 통해서 자연을 느끼고 장애인의 고통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

◆ 활동명 : 자치기

- * 활동유형 : 대근육활동
- * 학습형태 : 모둠 활동
- * 장소 : 송광야영장
- * 활동내용

- ① 긴 막대(50~60cm 어미자) 짧은 막대(10~15cm 새끼자)를 준비한다.
- ② 땅에 구멍을 내어 새끼자를 넣어 새끼자가 조금 나오게 해줍니다.
- ③ 그 끝을 어미자로 쳐서 새끼자가 멀리 날아가게 해야 됩니다.
- ④ 공격을 막는 편은 날아간 새끼자를 어미자로 맞추면 이깁니다.

◆ 활동명 : 큰 줄넘기

- * 활동유형 : 대근육활동
- * 학습형태 : 전체활동
- * 장소 : 송광야영장
- * 활동내용

차례대로 줄을 서서 한명씩 혹은 두세명씩 조를짜서 큰줄넘기를 한다.
자연스레 즐다리기로 연결하여서도 활동을 해본다.

◆ 활동명 : 실뜨기

- * 활동유형 : 소근육활동
- * 학습형태 : 모둠활동 (2명)
- * 장소 : 송광야영장
- * 활동내용

실이 얇히고 설켜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데 대한 신기함과 자기만족감이 실뜨기를 계속하는 핵심이라고 한다. 실내에서 실뜨기를 배운 아이들, 처음에는 어려워하더니 익숙해지면서 안팎을 가리지 않고 즐겨하였다.

◆ 활동명 : 잠행 - 몸으로 느끼는 자연

- * 활동유형 : 체험활동
- * 학습형태 : 모둠활동 7명~8명
- * 장소 : 송광 야영장 소나무 숲
- * 활동내용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한손으로는 앞친구의 허리춤을 잡고, 한손으로는 길을 인도해주는 밧줄을 잡고 소나무 숲길을 걸어가는 활동으로 오감을 통해서 자연을 느끼고 장애인의 고통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

◆ 활동명 : 자치기

- * 활동유형 : 대근육활동
- * 학습형태 : 모둠 활동
- * 장소 : 송광야영장
- * 활동내용

- ① 긴 막대(50~60cm 어미자) 짧은 막대(10~15cm 새끼자)를 준비한다.
- ② 땅에 구멍을 내어 새끼자를 넣어 새끼자가 조금 나오게 해준다.
- ③ 그 끝을 어미자로 쳐서 새끼자가 멀리 날아가게 해야 됩니다.
- ④ 공격을 막는 편은 날아간 새끼자를 어미자로 맞추면 이깁니다.

◆ 활동명 : 큰 줄넘기

- * 활동유형 : 대근육활동
- * 학습형태 : 전체활동
- * 장소 : 송광야영장
- * 활동내용

차례대로 줄을 서서 한명씩 혹은 두세명씩 조를짜서 큰줄넘기를 한다.
자연스레 줄다리기로 연결하여서도 활동을 해본다.

◆ 활동명 : 실뜨기

- * 활동유형 : 소근육활동
- * 학습형태 : 모둠활동 (2명)
- * 장소 : 송광야영장
- * 활동내용

실이 얇히고 설켜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데 대한 신기함과 자기만족감이 실뜨기를 계속하는 핵심이라고 한다. 실내에서 실뜨기를 배운 아이들, 처음에는 어려워하더니 익숙해지면서 안팎을 가리지 않고 즐겨하였다.

겨울 생태학교 일정표 - 친환경 전래놀이 학교

겨울 첫째날 (12월16일 월요일)- 송광 야영장에서 놀아 보자!!

몇 시에	뭐하냐면	어디서	책임 선생님
정오 12:00	송광야영장 도착		
정오 12:00-1:00	엄마가 맛있게 싸주신 도시락 나눔	야영장 식당	모듬 선생님
1:00-1:30	숙소배정 및 짐풀기	각 방숙소	모듬 선생님
1:30-3:00	모듬별 전래놀이 한마당 · 닭잡기 놀이 · 색깔 찾기 · 땅따먹기	야영장 운동장	김정화선생님
3:00-6:00	큰 줄넘기 연습 및 모듬별 야영장 탐색활동	야영장 운동장	김정화선생님
6:00-7:00	저녁식사 야영장에서 먹는 밥맛이 최고랍니다.	식 당	영양사
7:00-8:00	모듬별 자유시간 하루 일과 평가 및 소감 나누기	모듬별 숙소	모듬 선생님
8:00-10:00	환경 극놀이 친구들과 역할극을 통해 환경과 더욱 친해지는 시간	야영장 강 당	유혜숙 원장선생님
10:00-10:30	일기 쓰고 잠시다!!	숙소	모듬별선생님

겨울 둘째날 (12월17일 화요일)- 하루종일 전래놀이 하는날!

몇 시에	뭐하냐면	어디서	책임 선생님
오전 7:00	기상, 아침산책	야영장 산책로	모듬 선생님
8:00-9:00	아침식사 차가운 겨울바람은 뱃맛을 돋우는 요리비법	야영장 식당	영양사
9:00-11:00	온 몸으로 느끼는 자연 - 눈을 꼭 가리고 산에 가면, 새소리 도 낙엽 밟는소리도 더 크게 들려요,	야영장 산책로	보이스카웃연맹 홍오남국장님
11:00-12:00	연만들기 i - 창호지에 그림그리기	모듬별 숙 소	이형기선생님 모듬선생님
12:00-1:00	즐거운 점심시간	야영장 식 당	영양사
1:00-3:00	연만들기 ii - 연살 붙이고 실 연결하기	모듬별 숙 소	이형기선생님 김미이선생님
3:00-4:00	줄다리기 및 큰줄넘기 기네스	야영장 운동장	김정화선생님
4:00-6:00	· 연날리기 · 굴렁쇠 굴리기 · 자치기	야영장 운동장	이형기선생님
6:00-7:00	저녁식사	야영장 식 당	영양사
7:00-8:00	모듬별 자유시간 하루 일과 평가 및 소감 나누기	모듬별 숙소	모듬 선생님
8:00-9:00	쥐불놀이	야영장 운동장	이형기선생님
9:00-10:00	전통사탕 만들기	야영장 식 당	이형기선생님
10:00-10:30	일기 쓰고 잡시다!!	숙소	모듬별선생님

겨울 셋째날 (12월18일 수요일)- 사계절 생태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몇 시에	뭐하냐면	어디서	책임 선생님
오전 7:00	기상, 아침산책	야영장 산책로	모듬 선생님
8:00-9:00	아침식사	야영장 식당	영양사
9:00-11:00	연날리기 바람을 타보는 거야.	야영장 운동장	이형기선생님
11:00-12:00	사계절 생태학교를 마치며... 봄,여름,가을 겨울 생태학교를 마치며 그동안의 활동을 아이들과 평가해보는 시간이랍니다.	모듬별 숙 소	모듬선생님
12:00-1:00	점심 맛있게 먹고.. 집으로 출발!!	야영장 식 당	영양사
1:00-1:30	퇴소식	야영장 강 당	김정화선생님유 혜숙선생님

친환경 전래놀이학교를 마치며...

점점 아이들이 소꿉놀이 세트, 병원놀이 세트, 미장원 놀이세트가 없으면 소꿉놀이, 병원놀이 미장원 놀이를 못하는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래놀이 환경놀이는 항상 신고 다니는 신발,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돌, 한뼘 길이의 막대기, 신문지 한 장, 실 한가닥 등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물을 활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이 몸만 있으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많다.

사계절 생태학교의 마지막 겨울 전래놀이 학교에서는 춤다고 움츠리며 플라스틱 용기로 된 무슨 무슨 놀이 세트 놀이대신 송광야영장에서 자연물을 활용해서 즐길 수 있는 전래놀이(환경놀이) 학교이다.

1000원짜리 지폐 한장이면 문구점에서 반짝 반짝 빛나는 비닐에 날렵한 독수리가 프린트되고, 알록 달록한 비닐 꼬리 화려한 연을 쉽게 살 수 있다. 하지만 한지 잘라서 직접 문양 그려 넣고, 대나무를 만져보고, 깎는 모습도 곁에서 보며 직접 연을 만들었으니 자기만의 연이라는 생각에 소중히 느껴지는지 아이들은 집에 돌아 갈때까지 연을 애지 중지 하였다. 각자 만든 연이 하늘을 날자 신기함과 즐거움에 아이들은 계속 "선생님! 또 해 요. 또 날리고 싶어요."를 연발하였다. 큰 줄넘기는 처음에 한 개도 제대로 넘지 못했던 아이들이 자꾸 넘고 또 넘고하다 보니, 열 개, 스무개, 점점 실력이 늘어 마흔개 쉰개까지 넘을 수 있게 되었다. 순서 기다리며 팔딱 팔딱 큰줄을 넘는것도 재미있지만 친구들이 넘는 것을 곁에서 보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까딱 까딱해가며 세는 것도 재미있다고 한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참여했던 놀이중에 온몸으로 느끼는 자연이라고 부제를 붙인 '잠행'은 숲길에서 눈을 손수건으로 가리고, 한손으로 앞 친구의 허리춤을 잡고 한손으로 길을 인도해주는 줄을 잡고 줄을 따라서 가는 활동이다. 완벽하게 앞을 가리고 숲길을 손의 촉감, 발 디딤, 소리등의 육감으로 자연을 느껴 보는 시간. 아이들은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어려워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마른나무 밟는 소리와 새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었다. 온몸으로 자연을 느껴보고,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의 불편함, 고통을 같이 경험해 본 소중한 시간이었다.

직접 막대기 주어다 낫으로 쳐서 자를 만들어 놀이하는 자치기. 까만밤에 구멍 뚫은 강통에 숯을 담아서 돌리는 쥐불놀이. 굴렁쇠 굴리기. 물엿 끓여서 사탕 만들어 먹기.

실 한가닥 매듭 지어 가르르 가르르... 하얀실이 까맣게 될 때까지 뜨고 또 뜨고 실뜨기는 처음엔 어려워하더니, 나중엔 둘씩 짝을 지어 능숙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캠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엄마랑 할머니랑 오빠랑, 누나랑 같이 했다며 흥분해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잊고 지내던 전래놀이를 되찾았다는 뿌듯함과 함께, 아이들과 어우러져 재미있게 노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이 더 쉽다는 것을 느꼈다.

사계절 유아 생태학교를 마치며 -최종종평

1. 들어가며

지난 일년간 총 4회 연인원 65명의 교사진과 380명 어린이들이 참가했던 사계절 유아생태학교가 드디어 종료되었다.

일반적인 환경교육과는 약간 달리 현장교육은 생태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내용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이번 유아생태학교가 환경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 가는 지식전달 위주의 환경교육에서 끊임없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생태적 감수성에 젖어들게 하는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하려고 했다. 좀 더 욕심을 내서 참여를 유도하고 공간을 마련해주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랐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유아들의 환경교육 지침서 하나 제대로 없는 현실에서 양과 질 두가지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힘들었지만 지역내 유아 환경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교육의 주체들에게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고민거리를 만들어 준 적지않은 성과를 얻은 기회이기도 했다.

2. 생태유아환경학교의 성과

1) 사계절 생태 변화를 중심으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환경의식과 생활습관의 점진적인 향상을 유도할 수 있었다.

2) 멀티미디어와 교육기자재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강의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다.

- 환경 이해를 위한 영상물, 극영화 보기

(너구리 대작전,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 조별 채집된 곤충을 캠코더와 프로젝트를 활용한 대형화면으로 곤충의 특징 서식 환경을 직접 설명하여 교육 효과를 높였다.

- 천체 망원경을 충분히 구비하여 아이들의 관심도를 충족시켰고 이후에도 한 곳에 설치하여 태양 관측과 망원경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교습하였음. 특히 가을 캠프에서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천체의 변화를 화면으로 배울 수 있었음.

- 청진기로 수액의 흐름을 체크하여 나무에도 생명이 있는 대상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 미래의 환경뉴스를 진행하는 과정을 화면으로 잡아 방송 진행 현장감을 살렸으며 관심도를 높였다.

3) 환경연합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환경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의 꼼꼼한 준비

와 열정적인 강의로 교육효과를 높였음은 물론 참여하고 봉사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산 교육의 부수적인 효과를 얻음

- 유은영 선생이 지도한 천연염색의 경우 자칫 주마간산식의 형식적 체험으로 흐를 수 있었으나 사전자료, 염색천, 염색 작업 기구등을 미리 준비하여 단시간에 교육적 효과와 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 모두 자신이 염색한 손수건을 기념품과 선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기쁨을 누렸다.

- 기체조 시연과 배우기. 바른 자세 바른 마음 생활습관 지도.

지루하고 천편일률적인 아침체조 시간을 동물의 특성을 이용한 기체조를 통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직 체육교사인 선생님이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바른 자세 교육을 시청각 교재를 통해 진행함과 동시에 축구 지도를 해주었음.

- 전교조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과 교사동호회의 회원들의 참여가 활발했다. 유아환경교육의 전문성과 교육방법을 체득하고 있는 교사와 운영팀이 양산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음

4)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함.

- 환경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함께하는 환경운동을 교육하는 것은 아이들이 운동의 주체로 설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현장학습을 통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대신 민 유인물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3분 스피치를 통해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도 환경운동의 주체임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3. 유아 환경교육의 개선 방향

1) 유아환경교육 지침서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을 강사로 배치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유아환경 교육에 대한 기본 매뉴얼과 지침이 기획안 작성시 수립되어 강사진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안을 미리 마련해 올 수 있도록 사전 정보 교류가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는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환경운동가와 일반적인 교습에 익숙한 강사진의 교수 방법의 교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유아에 대한 환경교육지침서가 없는 현실을 심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외부인에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 환경학교 스스로 학습지도안을 만들고 이를 진행하면서 1차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접목 가능한 현실

적 학습지도안을 개발하고 점검시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시청각 교재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유아환경학교의 모듬교사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

전문성 있는 외부강사의 환경교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모듬의 운영과 보조 교육자로서의 모듬교사의 역할을 무척이나 중요하다. 아이들의 집중을 끌어내기 어려운 야외 현장 활동과 프로그램의 조별 준비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모듬교사에 대한 프로그램의 사전교육과 환경캠프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모듬 교사들이 느끼는 것과 경험은 유아 환경교육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고 환경교육자가 부족한 지역 현실에서 이들이 환경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챙기는 것 보살피는 것 이상의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야외 현장학습교육카드 지도나 강의 후 배운 내용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매체 개발과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한다.

3) 실천활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규범을 정착시켜야 한다.

유아 생태학교의 생활부분에서 최대한 친환경적인 내용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음식물 남기기기 않기, 쓰레기 줄이기, 물 적게 쓰기등을 모듬별로 체크를 해본다거나 쓰레기 수거 후 이를 분석하여 지역의 환경지수를 알아보는 식의 기획과 이를 아이들의 눈 높이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한다.

일방적으로 탄산음료나 병과류에 대한 통제보다는 어떤 점이 몸에 좋지 않은지를 우선 설명하고 자율에 맡겨보는 것도 시도해봄직 하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자연스럽게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교육을 위한 중요 생활 지도 사항이다.

4) 환경교육후의 평가의 정례화 내지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행사가 끝난 연후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후 평가와 성과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부모들을 통한 설문조사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시민단체의 능동성 적극활용)을 통해 아이의 변화와 환경교육의 가정으로의 확대 등도 고려했으면 한다. 오류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작은 성과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진행 평가서를 작성하여 공유하는 것이 좋다.

5) 유아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성 필요.

끝으로 어린이 환경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 내지 않고 조금씩 재미있게 사물을 관찰하고 자연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현장 체험과 더불어 환경을 소재로 한 영화상영, 동화 구연, 그리기와 글쓰기, 만들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게끔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과 관련된 단체나 전문가와 관계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원봉사 형태로 함께 준비를 하거나 성과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4. 유아환경학교를 마치며

아이들은 먹고 쓰고 입는 식의주의 과정에서 갈등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조금씩 느껴가기 시작했다. 지구라는 별의 주인은 사람만이 아니라 보잘 것 없는 곤충과 나무 풀 그리고 흙이라는 것을 말이다. 아이들은 자연의 친구들에게 조금씩 조심스러워했고 미안해하기도 했고 친구처럼 지내기도 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갈등은 조화로 해결해야한다. 지구라는 공간에서 자연과 조화롭게 한 식구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아이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한 이러한 아름다운 갈등은 계속 될 것이다. 환경학교는 아이들의 갈등을 계속 조장해 갈 것이다.

계절이 네번 바뀌는 동안 유아환경학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여러분과 모듬교사, 자원봉사자, 전주환경연합 활동가 그리고 사랑스런 우리 환경지킴이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